

## 김수영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인선

김수영 작가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거의 10년 전, 아마도 2004년이었던 듯 하다. 사진 작업을 하던 나의 지인은 좋은 작가를 소개하고 싶다며 나를 당시 평창동에 위치했던 김수영의 작업실로 데리고 갔다. 작품을 보니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 바로 개인전을 가졌던 작가로서 그 내용을 홍보물로 접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건물 외관의 일부분을 캔버스에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선보인 작품들은 독일의 아파트들, 특히 르크루뷔제의 실용적인 공간이 돋보이는 서민 아파트의 심플하면서도 화사한 색채의 파사드였다. 이후 서울에서 제작한 작업은 곧 그 대상이 서울에 있는 건물 이미지들로 바뀌었다. 마침 서울에는 하루가 다르게 빌딩이 세워지고 있었고 김수영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대상을 관찰 할 수 있는 풍부한 소재가 되었다.

건물을 묘사한다는 것은 단순해 보인다. 왜냐하면 빌딩의 속성상 같은 모양의 창문과 창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헌데 김수영은 이 속에서 풍부한 표현을 보여주었다. 반복되었으되 각각의 면들의 색이 모두 다르고, 면과 면의 각도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전통성에서 만들어졌던 원근법은 무시되면서도 공간감이 살아있는 것도 그 풍부한 색감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효과는 작가의 관찰력에서 이루어진다. 사실적인 표현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가까이서 보면 그리 사실적인 묘사의 느낌은 결코 아닌데도 말이다.

또 한 가지 김수영 작가에게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그가 그리는 대상을 평면으로 파악할 줄 안다는 것이다. 회화의 기본 구도를 잡을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그것이 입체라는 인식이다. 이것이 평면화되지 않으면 시각적인 착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또한 일반화된 관념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미지가 드러난다. 김수영은 이러한 점을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작가는 거대한 건물에서 떠올리게 되는 원근법 효과를 과감히 제외한 채 구도를 바라본다. 그리고 건물의 표면에 반사되는 빛에 반응한 색과 선의 느낌을 자신의 시각으로 따라간다.

2008년 <일탈의 기술>전의 참여 작가로 초대하였을 때 자신의 회화를 몇 점 출품한 김수영 작가는 미리 자신의 작품이 배치될 공간을 보고 난 후 본인이 직접 작품 배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특별한 설치작품이 아니었지만 장소에 따라서 거는 순서가 있는 정도이겠거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김수영 작가는 주어진 공간에 자신의 작품을 천장과 맞닿은 벽 모서리에 맞추거나 아주 아래 혹은 위쪽으로 그의 페인팅을 배치하였다. 갑자기 그 평범한 공간에 활기가 생기고 작품과 공간이 함께 눈에 들어왔다. 이후 나는 호시탐탐 김수영 작가와의 특별한 작업을 노리게 되었다. 그가 회화 작가이지만 공간을 파악하거나 활용에 탁월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제작한 벽화가 통의동에 위치한 MK2 카페에 제작되었을 때 그 확신은 강해졌고, 공간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뜻을 간간히 전했다. 그러던 터에 2012년 나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전시 공간을 오픈 하였으며 전시 일정을 짜기 시작하면서 김수영에게 전시를 의뢰하였다. 당장 전시를 하기에는 빠듯한 오픈 일정으로 그 해에 바로 성사되지 못했고 이번 2013년 5월 전시에서 비로소 이 작가의 공간 구상을 소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작업과 다른 방식을 구상한다는 것은 작가에게는 위험하면서도 신선한 모험이 될 것이 임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사뭇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작가와의 만남에서 나는 작가의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즐겼고, 작가는 수 십 개의 계획 드로잉과 모형 작업을 위해 갤러리

공간의 치수를 수도 없이 재보고 몇 번의 실험 끝에 공간의 벽이 작품이 되는 방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번 전시 제목 INVENTION은 음악가 바흐의 인벤션 시리즈에서 빌어온 용어이다. 그의 인벤션은 같은 형식의 음이 변형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확장된 형식의 곡이 만들어진다. 김수영의 기존 그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이번 윌링앤딜링의 전시에서 보여주는 설치에서는 반사 현상을 활용하고 있다.동시에 기존의 벽에 사각형의 드로잉이 만들어지면서 벽 안의 드로잉이 반사되면서 연장되고 기존 공간 또한 벽에 부착된 은반사 필름 속으로 흡수된다.기존의 벽이 사라졌으며 공간은 넓어졌다.원래 있던 윌링앤딜링의 구조를 이루는 모든 선들과 공간은 벽 표면 위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어 있다.새로운 재료,새로운 과정과 결과물에 의한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흥미롭고 즐겁다.이 장소가 이처럼 달리 보이도록 만들어진 김수영의 작품으로 인해, 그간 함께 작업하고자 했던 바람이 헛되지 않았음에 즐거운 마음이다.

2013년 6월 김인선 (윌링앤딜링 대표)